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을 위한 연구 2

- 창세기 1:1-2:3의 예로 -

김근주* 김선종** 김정훈*** 이상혁**** (가나다순)

1. 들어가는 말

이전 글에서 우리는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의 필요성, 실제적인 번역을 위해 번역 대본 및 여타 번역 프로젝트들에 대한 검토를 다루었다. 이번 글에서는 앞에서 다룬 논의에 근거해서 실제적인 번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리는 우선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창세기 1:1-2:3을 번역, 주석한다.

(1) 구약성경의 본문비평에 관심을 가진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먼저, 칠십인경과 마소라 본문 사이의 차이, 랄프스 비평본과 괴팅엔 대비평본 사이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그리고, 괴팅엔 대비평본이 제공하는 여러 본문비평적인 요소들을 가능한 한 자세히 관찰하여 설명한다.

(2) 본문 비평과 더불어 본문에 대한 주석 기능을 지녀야 한다. 히브리어 본문 및 그리스어 구약 본문에 대한 주석을 통하여, 기존의 주석서들이 미처 못한 신학적 논의들을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원고의 구성은 우리말 번역과 해설을 번갈아 배치한다.

(3) 우리말 번역에서 칠십인경이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이형을 보이지 않는 이상 일반명사들은 최대한 우리말 성경에서 익숙한 낱말들을 사용하나, 전체적인 어투는 되도록 고어를 지양하고 현대어 어투를 사용한다. 이로써 독자들이 한층 용이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그리스어의 음역을 되도록 살려 우리말로 음역한다.

* 한국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구약학.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개신교 신학부 박사과정, 구약학.

*** 독일 부퍼탈신학대학교 박사과정, 구약학.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개신교 신학부 박사, 구약학.

2.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의 실제: 창세기 1:1-2:3

2.1. 창세기 1장

¹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²하지만 땅은 보이지 않았고 형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둠이 심연 위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떠 다니고 있었다.

[본문 및 번역에 대한 해설]

1절. 태초에: ἀρχή는 ‘시작, 원리’의 의미가 있기에 ἐν ἀρχῇ는 ‘원리대로’로 이해될 수도 있다. 불가타가 In principio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서 불가타 번역자는 칠십인경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마쿠스(Symmacus)와 테오도션(Theodotion)은 칠십인경처럼 “엔 아르케(ἐν ἀρχῇ)”로 번역하였다. 반면, 아퀼라(Aquila)는 ἐν κεφαλαίῳ로 번역하였는데,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 의미를 문맥에 맞추어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좇아 직역하였다.

1절. 만드셨다: 칠십인경에서는 대개 동사 אָרַב가 κτίζω로 번역되었는데,¹⁾ 창세기 번역자는 אָרַב를 ποιέω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동사 אָרַב는 창세기에 서 11회(1:1, 21, 27^{tris}; 2:3, 4; 5:1, 2^{bis}; 6:7)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창세기 2:3, 4를 제외하고 모두 ποιέω로 번역되었다. 아퀼라는 κτίζω 동사를 사용하였다.

2절. 보이지 않았고 형성되지도 않았다: 히브리어 אָרַב אָרַב에 대한 서로 다른 번역들이 눈에 띈다. (1) 칠십인경의 번역 ὄρατος는 אָרַב의 대응어로 여기에서만 등장한다. 이는 히브리어 אָרַב가 단어 자체의 불명확성 때문에 칠십인경에서 통일되게 번역되지 않은 채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데 기인한 듯하다. 그것은 אָרַב의 대응어로 쓰인 ἀκατασκεύαστος 역시 마찬가지이다.²⁾ 히브리어 אָרַב אָרַב가 예레미야 4:23에서 οὐδεν으로 해석되어 번역된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2) 아퀼라는 이 표현을 “비어있음과 아무 것도 아님”의 뜻을 가진 κένωμα καὶ οὐθεν으로 옮겼는데, κένωμα는 κενός³⁾와 더불어 아퀼라의 히브리어 אָרַב에 대한 기계적인 대응어이다.⁴⁾ 언어사적으로 살펴보면 οὐθεν은 프톨레미 시대 동안에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지만, 주전 100년경이 지나면서 οὐδεν과 혼용되었고,

1) 참조, E. Hatch and H. A. Redpath, eds.,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T (including the Apocryphal Books)*, 2nd 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8) (Muraoka의 Index가 포함됨). 이하 HR로 줄여 씀. 또한 무라오카의 인덱스는 HR-Muraoka, Index로 줄여 씀.

2) HR-Muraoka, Index, 24. 156.

3) 사 34:11; 렬 4:23.

4) 신 32:10; 욥 24:7; 사 40:23; 54:4; 렬 4:23{syr}.

주후로 넘어가면서 οὐδεν이 압도하게 됨을 알 수 있다.⁵⁾ 이 역시 אַחַד에 대한 아퀼라의 기계적인 대응어로 여겨진다.⁶⁾ (3) 심마쿠스는 “손 대지 않은 채이며 결정되지도 않은 채”로 옮길 수 있는 ἀργὸν καὶ ἀδιάκριτον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살려 번역하였다. 즉, ἀργὸν은 부정의 접두사 ἀ-와 “일, 사역”을 뜻하는 ἐργός가 합성된 낱말이며, ἀδιάκριτον은 역시 부정의 접두사 ἀ-와 “결정된, 구분된, 분리된”을 뜻하는 διάκριτος가 합성된 낱말이다. (4) 테오도션은 그에 반해 히브리어의 발음을 반영하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는 θεὸν καὶ οὐθεν으로 옮기는데, 이는 “토후 와보후”처럼 비슷한 발음의 조합을 흉내낸 것이 아닐까? θεὸν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δέν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리스어에서 δείξις는 중성 δέν의 형태로 οὐδέιν 또는 μηδέιν와 늘 함께 쓰이며 이 낱말에 대한 대칭어로 쓰이는데, 그 뜻은 “어떤 것”이다. 하지만, 테오도션의 번역은 그리스어 자체로는 낯선 표현이며, 아마도 히브리어 발음을 흉내 내는 동시에 “흔들린 상태”를 표현하려 한 듯하다.

2절. (있었다): 몇몇 중세 소문자사본들(569 246 75 730)이나 다른 본문 전승(Phil I 10.5 Sev 435 La Bo Pal)에서 앞선 구절에서와 마찬가지로 ἦν을 삽입하였음을 볼 수 있다.

2절. 영: 주지하다시피 히브리어 אַחַד는 칠십인경에서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πνεῦμα로 주로 번역된다. 두 낱말 본래의 뜻을 살리자면 “숨결”이라 옮길 법하나,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영”으로 번역하였다.

2절. 물: 칠십인경은 그리스어 어법에 맞게 물을 단수(τοῦ ὕδατος)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후대 몇몇 교부들⁷⁾이나 고대 라틴어 번역(La), 콥트어 번역(Bo)은 히브리어 어법의 영향으로 물을 복수(τῶν ὑδάτων)로 옮긴다.

2절. 떠 다니고 있었다: (1) 마소라 본문이 여성 분사 피엘형(פְּתַרְתָּ)을 쓰고 있는 데 반해, 칠십인경은 정동사 미완료형(ἐπιφέρειτο)을 쓰고 있다. 마소라 본문의 분사는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션의 번역(ἐπιφερόμενον)에서 확인할 수 있다. 히브리어 분사를 그리스어 분사로 옮긴 것은 맹목적인(sklavisch) 직역이다. 하지만, 이 그리스어 분사형은 그리스어 구문론에서 볼 때, 선행하는 ἦν과 더불어 이른바 예들러 쓴 시상 표현인 이른바 “코유가치오 페리프라스티카(coniugatio periphrastika)”를 이루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칠십인경의 번역과 다르지 않은 뜻이 된다.⁸⁾ 히브리어에 פְּתַרְתָּ와 분사형이 함께 쓰여서

5) H. G. Liddell and G. Scott (revised by H.S. Jones),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843; 1996); 이하 LSJ로 줄여 씀, 1269; 참조, H. St. J. Thackeray,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58-62.

6) 사 34:11; 렬 4:23; J. Reider, *An Index to Aquila* (Leiden: Brill, 1966), 133, 178.

7) Clem III 122 Iust Ap LIX 3 LXIV 3.

과거에 계속되었던 동작을 강조하는 뜻을 갖는 점을 생각한다면,⁹⁾ 분사 번역은 직역이면서도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2) 히브리어 동사 הָלַךְ 는 원래의 뜻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후대의 유대주의 해석에 따르면, “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새와 같은” 모습으로 여겨진다.¹⁰⁾ 그에 비해 칠십인경의 번역에 쓰인 동사 ἐπιφέρωμαι 는 그 뜻이 “(물 따위 위에서) 흔들리다, 떠 다니다”이다. 칠십인경은 드물게 쓰이는 피엘형 동사 הָלַךְ 를 문맥에 맞게 해석하여 옮겼다.

³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다.

⁴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⁵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첫 날이었다.

[본문 및 번역에 대한 해설]

3절. 말씀하셨다: 창조 단락에서 히브리어 וַיֹּאמֶר 가 2:18까지 11회 나타나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καὶ εἶπεν 은 10번 사용되고 있다(1:3, 6, 9, 11, 14, 20, 24, 26, 29; 2:18). 칠십인경 번역자는 1:28에서 וַיֹּאמֶר 를 καὶ εἶπεν 대신 분사 λέγων 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22절에 나타나는 구조에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וַיִּבֶן 동사에 이어 연속되어 나타나는 וַיִּבֶן 의 분사 형태(וּבִנֵּן)에 따라 번역하여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 시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절. 빛이 있으라: 칠십인경 창세기 번역자는 본 구절에서 히브리 본문에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다. 히브리 동사 וַיִּבֶן 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리스어 대응어는 εἶμι 와 γίνομαι 로서, 앞의 2절에서 וַיִּבֶן 동사를 ἦν 으로 옮긴 반면, 3절에서 번역자는 γίνομαι 동사를 선택하였다(아퀼라는 첫째 וַיִּבֶן 동사를 γίνομαι 의 중간태 γενέσθω 로, 심마쿠스는 εἶμι 동사의 명령형 ἔστω 로 번역하였다).¹¹⁾ 이처럼 וַיִּבֶן 를 γίνομαι 로 번역한 것은 그리스어 번역에서 아주 일반적인

8) F. Blass, A. Debrunner, and F. Rehkopf, *Grammatik des NT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¹⁸), §353.

9) W. Gesenius (rev. E. Kautzsch), *Hebräische Grammatik* (Hildesheim; Zürich; New York: Georg Olms Verlag, 1995²⁸) = E. Cowley, trans.,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1910²). §116r. 이하 GKC로 줄여 씀.

10) L. Koehler, and W. 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Leiden; Boston: Brill, 2004), 1137. 이하 HALAT로 줄여 씀.

11) 히브리 וַיִּבֶן 동사의 jussive를 그리스어로 옮길 경우, εἶμι 동사의 명령형 및 직설법 미래가 사용된 용례들이 있다(잠 3:7; 23:20; 24:28 등). 창세기에 나오는 וַיִּבֶן 의 jussive וַיִּבֶן 의 경우, 생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구절(창 1:3, 6, 14)에서 일관되게 γίνομαι 의 단순과거 명령형 형태

데, 창조 단락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생성을 나타내는 단어 γενηθήτω의 접두어 γεν은 칠십인경의 첫 책의 이름이 된 창세기(βίβλος γενέσεως: 창 2:4)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히브리 동사 נָתַן가 헬라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인 ‘생성 및 소멸’을 표현하는 말로 번역됨으로써 칠십인경 성경을 읽는 후대의 독자들, 즉 교부들과 신약의 저자들에게 핵심적인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다.¹²⁾

4절. 좋았다: καλός의 번역어인 καλός는 창세기 번역자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¹³⁾ 칠십인경 전체에서 καλός의 대응어는 대체로 ἀγαθός이지만(아퀼라도 ἀγαθός로 옮기고 있다), 창세기는 압도적으로 καλός를 선호한다. 같은 오경 묶음 안에서도 신명기와는 뚜렷이 대비되는데, 신명기는 일반적 경향을 따라 καλός 보다는 ἀγαθός로 옮기고 있고, 창세기는 겨우 대역섯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καλός로 옮긴다. 두 단어의 의미상 차이는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 여하간, καλός는 인간의 감정적 평가와 실용적 쓸모, 도덕적 기준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이다(LSJ 참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 보시니 좋았다”라는 구절은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면서(4, 8, 10, 12, 18, 21, 25, 31-마소라 본문과는 달리 칠십인경은 8절에도 이 구절이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 사역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종합적 평가를 보여준다.

4절. 사이: ἀνά μέσον은 칠십인경에서 히브리어 전치사 בֵּין의 번역어로 규칙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בֵּין이 중복해서 나올 경우, 칠십인경 창세기도 대체로 이를 따른다. 모두 34회 가량 이러한 구절이 나오는데, 10번 정도(9:13; 13:8; 16:5; 17:11; 23:15; 31:44, 46, 48, 49; 32:17 - 이 용례들은 대부분 “나와 너 사이”를 의미하는 구절들이다)는 칠십인경이 한번만 반영하고 있고, 두 번(31:50, 51)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의 경우 마소라 본문처럼 ἀνά μέσον을 반복하고 있다.

4절. 나누셨다: 후반절에 나오는 “빛과 어둠”은 2절에서 언급된 어둠과 3절에서 생성된 빛을 가리키므로, 굳이 정관사를 반영하여 “그 빛과 어둠”으로 옮긴

를 사용한 반면, 라반의 명령(창 30:34), 예서의 명령(창 33:9)에서는 εἶμι의 명령형 ἔστω, ‘단’에 대한 저주의 단락에서는(창 49:17) 창세기 1:3과 같은 γίνομαι 형태가 사용되었다. 기타 오경의 용례에서 ἔστω를 번역하기 위해 εἶμι의 중간태 미래(출 7:9), εἶμι의 명령(출 10:10), γίνομαι의 명령(신 32:38), εἶμι의 미래(신 33:24)가 사용된 용례들이 있다. 번역자가 창조본문에서 ἔστω 동사를 εἶμι로 옮기지 않은 것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우주생성론의 대표적인 용어인 γίνομαι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단순과거를 사용함으로써, 이 형태가 가질 수 있는 기능에 따라, ‘창조의 유일성, 일회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2) 이러한 주제와 ‘빛’(φῶς)이 신약, 특별히 요한복음 1:4-5, 9 및 고린도후서 4:6 등과 갖는 신학적 관계에 대해서는 M. Harl, *La Genèse, La Bible d’Alexandrie I* (Paris: Cerf, 1986), 87-88과 M. Alexandre, *Le commencement du livre Genèse I-V*, *Christianisme Antique 3* (Paris: Beauchesne, 1988), 88-92를 참고할 수 있다.

13) J. W. Wevers, *Notes on the Greek Text of Genesis*, SCS 35 (Atlanta: Scholars Press, 1993), 2.

다. 칠십인경에서 לַיְלָה를 반영한 단어로는 διαχωρίζω가 선택되었는데, 이 단어는 לַיְלָה의 일반적인 대응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 1장을 제외한다면 오직 역대하 25:10에서만 이런 조합이 나타난다. 대체로 לַיְלָה의 대응어는 διαστέλλω이다(레 10:10; 11:47; 민 8:14; 16:9; 신 10:8; 19:2, 7; 29:20). 그런 점에서 칠십인경 번역자가 διαχωρίζω를 선택했다는 점도 창세기 번역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절. 빛을: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션은 마소라 본문 אִשְׁרָיִם의 전치사 לְ를 고려하여서, 칠십인경처럼 τὸ φῶς로 번역하지 않고 τῷ φωτί(여격)로 번역하였다. 칠십인경에 비해서 이들 번역은 가능한 마소라 본문 언어 형식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5절. 첫 날: μία는 기수이지만 코이네, 고전 그리스어에서 서수로 사용되기도 하였고,¹⁴⁾ 히브리어 אֶחָד도 문맥에 따라서 기수, 서수로 사용될 수 있었다. 결국, 번역자는 원문의 기수를 번역문에서도 기수로 번역함으로써 원문의 형식도 존중하며 원문의 의미도 살렸다.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할(Harl)은 ἑσπέρα와의 대비 관계에 근거하여 πρωί를 명사적 의미로 간주한다.¹⁵⁾ 하지만, 5절의 πρωί를 부사로 해석해 볼 수 있다. ἡμέρα μία를 두 번째 ἐγένετο의 주어로 보면 그러한 해석은 가능하다. 그러면 “저녁이 되었고 아침이 되니(πρωί를 우리말의 부사적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첫 날이었다”가 된다. 이 입장에서 보면, 번역자는 히브리어 אֶחָד를 πρωί로 대치하여 원문도 존중하며,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제대로 된 문장(에게 네또 헤메라 미아)도 만든 셈이 된다.

⁶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궁창이 물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그것이 물과 물 사이를 나누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⁷그리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의 물 사이를 나누셨다.

⁸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둘째 날이었다.

[본문 및 번역에 대한 해설]

6절. 궁창이: 히브리어의 낱말 עֲרֶבֶת는 그 어원이 되는 동사의 뜻을 살펴보면 “다져서 펼치다(עָרַב)”이다. 그런 의미에서 칠십인경의 대응어 στερέωμα가 동사 στερεόω (make firm)에서 왔다고 보면, 이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제대로 살핀 적

14) A. Bailly, *Dictionnaire Grec-Français* (Paris: Hachette, 1894, 1963²), 598.

15) M. Harl, *La Genèse*, 88.

절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참고, 사45:12).¹⁶⁾ 우리말 번역 “궁창”에 대해서는 아래 7절의 해설을 보라.

6절. 있으라: 3절에서 본 바와 같이 הָיָה 동사의 Jussive형 יִהְיֶה 가 명령법 Aorist $\gamma\epsilon\iota\eta\theta\eta\tau\omega$ 로 옮겨졌다. 이에 대해서는 3절의 해설을 보라.

6절. 물과 물 사이를: (1) $\text{\u00e0}\nu\alpha\ \mu\acute{\epsilon}\sigma\sigma\omicron\nu$ 에 대해서는 4절의 해설을 보라. (2) 히브리어 전치사 \u00e5 를 칠십인경에서는 $\text{\u00e6}\iota$ 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번역자의 수정으로 보인다.

6절. 나누라: 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도 칠십인경은 $\text{\u00e6}\iota$ 와 분사의 조합을 직역한다. 이에 대해서는 2절의 해설을 보라.

6절.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이 부분은 마소라 본문에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칠십인경 번역자의 히브리어 대본에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text{\u00e6}\iota\ \text{\u00e6}\iota$ 이 있었으리라고 추측할 근거 역시 없다. 비록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칠십인경 필사본에 이 부분이 있지만,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션에는 이 구절이 없다(Philop 110). 더욱이 아랍어역 헥사플라의 표기에 의하면(Obelos와 Metobelos의 조합) 오리겐 역시 이 부분이 자신의 칠십인경 편집 대본에는 있지만, 원-본문(Ur-Text)에는 없다고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⁷⁾ 이 사실은 적어도 원-마소라(Proto-MT)의 전통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을 것임을 확증한다. 따라서, 칠십인경 번역자가 9, 11, 15, 24, 30절에 근거해서 여기에 이 부분을 임의로 삽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절에서도 우리는 이와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20절에서는 오리겐 역시 이 구절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삽입을 통해서 번역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의 진실성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

7절. 궁창: 한자어 ‘궁창’은 ‘높고 푸른 하늘’을 뜻하기에, 사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 히브리어 $\text{\u00e6}\iota\text{\u00e6}\iota$ 가 $\text{\u00e6}\iota\text{\u00e6}\iota$ 와 분명히 구별되나, 8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로 부르셨다는 점에서 $\text{\u00e6}\iota\text{\u00e6}\iota$ 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리스어 $\text{\u00e6}\iota\text{\u00e6}\iota$ 가 하늘의 어떠한 부분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로는 칠십인경에 들어와 처음이며, 본래 이 말은 ‘단단한 것’을 뜻한다(신약 골 2:5의 믿음이 ‘굳건함’, ‘단단함’, ‘견고함’).

16) 이사야 45:12에서는 그리스어 동사 $\text{\u00e6}\iota\text{\u00e6}\iota$ ($\text{\u00e6}\iota\text{\u00e6}\iota$)가 히브리어 $\text{\u00e6}\iota$ 의 대응어로 쓰였다. 하지만, 번역자가 이 구절에서 창세기의 “라키아”를 염두에 두고 번역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text{\u00e6}\iota\text{\u00e6}\iota$ 가 오직 이사야의 이 구절에서만 $\text{\u00e6}\iota$ 의 대응어로 쓰였다는 사실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17) 참조, F. Field,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vol. 1 (Oxford, 1867; reprinted Hildesheim: Georg Olms Verlags, 1964), 8.

7절. 하나님은: 일부 중세 소문자 사본(44, 508, 527)들은 칠십인경의 둘째 문장에 있는 ὁ θεός를 생략한다. 이는 아마도 히브리 본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칠십인경에 나타나고 있는 ὁ θεός는 아마도 번역자가 가지고 있던 대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히브리어 구문론과도 일치하는 점에서 그러하다.¹⁸⁾

7절. (궁창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의 번역에서 ‘있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ἦν은 칠십인경 번역자의 첨가로서, 번역자는 첫째 “아쉐르(ἄσῆρ)”는 ὁ ἦν으로 옮긴 반면, 둘째 “아쉐르(ἄσῆρ)”는 그리스어 대응어를 사용하지 않고 번역하였다.

7절. fin.: 많은 소문자 사본들은 히브리 본문과 일치하도록 1장 7절 끝에 실현 양식을 첨가한다(καὶ ἐγένετο οὕτως, 창 1:11, 15, 24, 30. 1:9 참고). 이러한 첨가는 s, t, 카테나 그룹, 또한 시리아어 헉사플라에 나타나고 있다.

8절. 부르셨다: 아퀼라와 심마쿠스, 테오도션은 καλέω 동사를 다룰 때, 칠십인경과는 다르게 옮기고 있다. 지금 다루는 8절처럼, ‘무엇을 무엇이라고 이름 짓다’와 같은 구문에서, 칠십인경은 두 개의 대격을 사용하는 반면, 아퀼라는 여격+주격, 심마쿠스와 테오도션은 여격+대격을 채택하고 있다(5절, 10절 참고).

8절.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칠십인경에만 있는 이 부분은 앞에서(6절의 논의를 참고) 언급되었듯이, 아마도 칠십인경 역자들에 의한 첨가일 것이다. “보시니 좋았다”와 “그대로 되었다”의 교차반복을 통해, 1장 전체는 마소라 본문보다 더 조화롭고 짜임새 있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보여 주고 있다.

⁹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자리에 모이고 물은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그들의 자리에 모였고 물이 보였다.⁺

¹⁰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일컬으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일컬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본문 및 번역에 대한 해설]

9절. 한 자리에: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션은 εἰς συναγωγὴν μίαν 대신에 εἰς τόπον ἕνα를 가지고 있다(Philop159). 칠십인경에서는 일반적으로 ὁμοῖον은 τόπος로 번역이 된다. συναγωγή는 같은 어원을 가진 선행하는 동사 συνάγω의 영향으로서, 번역문의 내적 조화(harmonization)를 위한 번역자의 의도적 선택으로 보인다.

18) W. P. Brown, *Structure, Role, and Ideology in the Hebrew and Greek Texts of Genesis 1:1-2:3*, SBLDS 132 (Atlanta: Scholars Press, 1993), 137 참조.

9절.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그들의 자리에 모였고 물이 보였다⁺: 이 부분은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구절이다.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션은 칠십인경처럼 추가 구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마도 칠십인경 번역자의 번역 대본에도 이 구절들은 없었던 것으로 번역자의 의도적 삽입으로 보인다. 이 삽입 구절들은 9절의 구조를 명령(…하여라)+서술(… 있었다) 구도로 만든다. 명령과 그 결과에 대한 서술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와 같이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9절의 ‘명령과 서술’ 구도는 3절의 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0절. 본문 10절은 마소라 본문과 동일한 대본을 전제한다. 그리고 대본을 어순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의 모든 요소까지 재구성하며 매우 철저하게 직역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히브리어 전치사와 그 처리이다. 히브리어 전치사 ה의 경우 그리스어에서는 대격 정관사로 대치되었는데, 이는 그 다음 나오는 명사들(에레쯔와 암뫼)에 대한 번역에 정관사가 누락된 데서, 이들 정관사가 전치사 ה의 대응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일대일 직역의 극한을 보여주는 아퀼라의 경우 그리스어 구문에 맞는 대격 정관사를 쓰는 대신 여격 정관사를 씌으로써 히브리어 전치사 ה를 재구현하려 하였다. 실제로 칠십인경에서 히브리어 전치사 ה는 일반적으로 πρὸς로 옮겨지는 与格과는 구별되게 여격 정관사로 옮겨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아마도 칠십인경의 번역자는 이런 일대일 번역 경향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번역은 아퀼라에 의해 그리스어 구문론에서 벗어나면서까지 극대화된 것으로 보인다.

¹¹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은 ⁺종류대로, 그리고 ⁺닭음대로⁺ 씨를 (씨)맺는 식물의 풀과, 종류대로 그 안에 자신의 씨가 있는 열매 맺는 과일 나무를 땅 위에 자라게 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¹²그리고 땅이 씨를 맺는 풀을 종류대로 또 ⁺닭음대로⁺ 내었고, 땅 위에서 그 종류대로 자신 안에 그 씨가 있는 열매를 내는 과일수를 (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¹³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셋째 날이었다.

[본문 및 번역에 대한 해설]

11절. 종류대로, 그리고 닭음대로: 칠십인경 번역자는 히브리 본문에 없는, “종류대로, 그리고 닭음대로(κατὰ γένος καὶ καθ’ ὁμοιότητα)”를 삽입한다. 우리 말 ‘닭음’으로 번역한 ὁμοιότης는 26절에서 דְּמוּת을 번역하기 위해 사용된 ὁμοίωσις와 같은 뜻으로 여겨진다.

11절. 식물의 풀 … 과일나무: 히브리 본문이 ‘풀, 식물, 과일나무’에 관한 식

물의 삼중 분류를 반영하도록 이해될 수 있는 반면, 칠십인경 번역자는 ‘식물의 풀, 과일나무’의 이중 분류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는 ‘과일나무’ 앞에 전치사 *καί*를 첨가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번역자는 히브리어 *קטף*를 다음 말 *קטף*의 여격으로 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본래 *χώρτος*가 ‘어느 닫혀진 공간, 먹이는 장소’를 뜻하기에 *βοτάνη χώρτου*를 ‘초장의 풀’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한편 아퀼라는 히브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동족어 동사 *קטף*와 명사 *קטף*를 반영하기 위해 *קטף*에 대한 칠십인경의 번역어 *βοτάνη*를 “블라스페마”로 전환한다(블라스파노/블라스페마).

11절. 열매 맺는: 우리말 ‘열매 맺는’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같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동사 *σπείρω*(씨앗다)와 다른, *ποιέω*(만들다)이다. 참고로 *ποιούν καρπόν*(열매 맺는)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어록에 견주어 보는 것도 흥미롭다(마 3:10; 7:19; 눅 3:9; 6:43).¹⁹⁾

12절. 닭음대로: 칠십인경은 마소라 본문에 없는 “닭음대로”가 더 있다(26절 참고). 사람 창조의 맥락에서 등장하는 이 구절이 왜 씨맺는 풀에 대해서도 더 첨가되어 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12절. 내었고: *קטף* 동사가 여기서는 *ἐκφέρω* 동사로 옮겨졌다. 1장에서 같은 히브리어 동사가 24절에도 쓰이는데, 거기서는 *ξέγαγω* 동사가 사용된다. 두 경우 모두 ‘땅이 무엇을 내다’에 해당하지만, 번역자는 땅이 식물을 내는 것과 땅이 동물을 내는 것을 구별하여 번역해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별은 12절에서도 *ξέγαγω*를 쓰고 있는 몇몇 사본들이나 심마쿠스로 가면 찾아볼 수 없게 된다.

12절. 땅 위에서: 칠십인경은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ἐπὶ τῆς γῆς*가 반영되어 있다. 씨맺는 풀에 첨가된 “닭음대로”와 더불어, 번역자는 11절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마소라에서는 분명히 두 절 사이에 약간 차이가 있게 표현되어 있지만, 칠십인경은 완전히 일치시켜 버렸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12절에서 그대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조화로운 질서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절. 과실수들: 칠십인경은 *עץ*를 두 번 반영하고 있다. 구약 전체에서 *ξύλον*은 “나무”에 대한 대표적 번역어이다. 특히, 에덴동산에 있던 나무들은 모두 *ξύλον*으로 표현된다.

¹⁴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의 궁창에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 땅의 빛이 되도록* 발광체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들이) 표징과 때와 날과

19) 칠십인경 창세기 번역자는 2:9의 ‘생명나무’와 창세기 1:11, 12에서 ‘나무’를 옮기기 위해 그리스어 *ξύλον*을 사용한 반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열매맺는 나무’에서의 ‘나무’는 *δένδρον*이다.

해가 되어라.”

¹⁵그리고 땅 위에 비추도록 하늘의 궁창에서 그들이 빛을 위하여 있으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¹⁶그리고 하나님이 두 큰 발광체를 만드시되, 큰 발광체로 낮을 주관하도록, 그리고 보다 작은 발광체로는 밤을 주관하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다).

¹⁷그리고 하나님은 땅 위를 비추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에 그것들을 두셨다.

¹⁸그리고 (그것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¹⁹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넷째 날이었다.

[본문 및 번역에 대한 해설]

14절. 발광체들: 창세기 1:14-18의 칠십인경 번역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히브리어 **אֲנִי**를 어근으로 하는 낱말에 대한 다양한 번역이다. 더욱이 **φαύσις**와 **φωστῆρ**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동의어로 번역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추상명사(abstrakta)를 만드는 어미 “-σις”와 행위자 명사(nomina actoris)를 만드는 어미 “-τηρ”를 번역자가 구분없이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14절에서 번역자가 “포스페르”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관점에 따른 구분이었던 듯하다. 즉, “포스페르”의 기본적인 뜻²⁰에서 보듯이 여기에서는 “발광체”로서 “궁창”을 비추는 방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에 반해 마소라 본문에는 그 대응어가 없는 “파우시스”는 그 뜻이 기본적으로 “비춤”²¹임을 감안한다면, 땅을 관점으로 한 단어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14절. 땅의 빛이 되도록: 칠십인경의 **εἰς φαῦσιν τῆς γῆς**는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말이다. 이 말은 아마도 위의 논의에서 보듯이 번역자의 의도적인 삽입으로 보인다.

14절. 표징과 때와 날과 해: (1) 여기에 쓰인 낱말들은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모두 복수로 쓰였지만, 우리말 어감으로는 단수가 더 어울린다. (2) 히브리어 구문에서 **אֲנִי**의 구문에서 **אֲנִי**와 함께 쓰인 명사가 문장의 보어가 되듯이, 우리말 번역에서도 보어로 번역을 한다. 하지만, 칠십인경의 번역은 히브리어의 직역으로 순수한 그리스어 표현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²²

20) LSJ, 1953: ‘that which gives light’; W. Pape, *Griechisch-Deutsches Handwörterbuch*, Bd. 2. (Graz: Akademie Druck- u. Verlagsanstalt, 1954; 이하 Pape로 줄여 씀), 1323쪽: ‘der Licht Gebende’.

21) LSJ, 1920: ‘lighting, illumination’.

22) 참조, F. C. Conybeare and G. A. Stock, *Grammar of Septuagint Greek*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0), §90, c.

15절. 하늘의 궁창에서 그들이 빛을 위하여 있으라: 이 말을 우리말로 보다 자연스럽게 ‘하늘의 궁창에 빛이 있으라’로 옮길 수 있지만(14절 해설 참조), 그리스어 구문을 살리기 위해 ‘빛’을 보어로 옮겼다. 이처럼 옮길 때, 칠십인경 14절을 ‘발광체들이 땅에서 빛을 위하여 있으라’, 즉 ‘땅 위 빛을 위하여(그 의미를 굳이 풀면, ‘땅 위에서 비추도록’) 발광체들이 있으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즉 14-15절 전체의 맥락에서, 후자의 발광체, 즉 “파우시스”의 보어 형태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번역이다.

15절. 발광체: 본 절을 둘러싸고 있는 14절과 16절에서 $\gamma\lambda\omega\sigma$ 가 $\phi\omega\sigma\tau\eta\rho$ 로 옮겨진 반면, 번역자는 이 곳에서 14절과 15절 및 기타 칠십인경의 나머지 두 구절에서만 나타나는(유딧 13:13; 시 73:16) $\phi\alpha\upsilon\sigma\iota\varsigma$ 를 사용한다. 이는 뒤에 나타나는 동사 $\phi\alpha\acute{\iota}\nu\omega$ 와 잘 어울린다($\gamma\lambda\omega\sigma$ // $\gamma\lambda\omega$, $\phi\alpha\upsilon\sigma\iota\varsigma$ // $\phi\alpha\acute{\iota}\nu\omega$). 반면 아퀼라는 칠십인경의 $\phi\alpha\upsilon\sigma\iota\varsigma$ 를 또다시 $\phi\omega\sigma\tau\eta\rho$ 로 수정하는데, 앞의 14절에 나타나는 표현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절. 큰 발광체 ... 작은 발광체: 히브리어 גְּדוֹלָה 과 קְטָנָה 앞에 붙은 정관사와 더불어 이 형용사들은 비교급으로 역할하고 있다.²³⁾ 칠십인경의 번역자는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קְטָנָה 을 비교급인 $\acute{\epsilon}\lambda\acute{\alpha}\sigma\sigma\omega\upsilon\upsilon$ 으로 옮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앞에 나온 גְּדוֹלָה 은 원급형태인 $\acute{\mu}\acute{\epsilon}\gamma\alpha\varsigma$ 를 사용했다. 이러한 번역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만일 קְטָנָה 을 그대로 직역할 경우($\mu\iota\kappa\rho\acute{\sigma}\varsigma$), 처음에 나온 두 개의 “큰($\acute{\mu}\acute{\epsilon}\gamma\alpha\varsigma$)” 광명이라는 말과 모순된다. 그런 점에서 $\acute{\mu}\acute{\epsilon}\gamma\alpha\varsigma$ - $\acute{\epsilon}\lambda\acute{\alpha}\sigma\sigma\omega\upsilon\upsilon$ (둘 다 크지만 그 중에서 큰 것과 작은 것) 결합은 가능한 직역하면서 실제의 의미를 살려낸 번역일 것이다. 이에 비해 아퀼라와 테오도션은 기계적으로 둘 다 원급을 써서 $\acute{\mu}\acute{\epsilon}\gamma\alpha\varsigma$ - $\mu\iota\kappa\rho\acute{\sigma}\varsigma$ 결합을 쓰고 있으며, 심마쿠스는 둘 다 비교급을 써서 $\mu\epsilon\acute{\iota}\zeta\omega\upsilon\upsilon$ - $\acute{\epsilon}\lambda\acute{\alpha}\sigma\sigma\omega\upsilon\upsilon$ 결합을 채택하고 있다.

16절. 주관하도록: $\eta\gamma\omega\gamma\iota\sigma\tau\eta\iota$ 은 대체로 $\acute{\epsilon}\zeta\omega\upsilon\sigma\iota\alpha$ 로 옮겨지지만(왕하 20:13; 시 114:2; 136:8, 9; 아퀼라; 테오도션), 여기서는 $\acute{\alpha}\rho\chi\eta$ 가 사용되었다(렘 41:1; 미 4:8). 18절에서도 $\eta\gamma\omega\gamma\iota\sigma\tau\eta\iota$ 동사는 $\acute{\alpha}\rho\chi\omega$ 로 옮겨진다. $\acute{\epsilon}\zeta\omega\upsilon\sigma\iota\alpha$ 는 신약성서에서 빈번하게 쓰이고, 칠십인경에서는 후기에 번역된 문서들에만 약간 쓰일 뿐이며, 오경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acute{\alpha}\rho\chi\eta$ 는 이 단어가 포함하는 여러 의미들에 걸쳐 오경 번역자들에게 널리 이용되는 단어였다.

17절. 그것들을: 문맥상으로 보면 목적격 대명사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tau\omicron\varsigma$ 는 ‘두 큰 발광체’와 ‘별들’ 모두를 가리키거나, 혹은 ‘두 큰 발광체’만을, 혹은 ‘별들’만을 받을 수 있지만, ‘별들’만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낮과 밤을 다스리는’ 것은 ‘두 큰 광체’이다. 18절의 ‘낮과 밤을 다스리는 것’에

23) GKC, §133f.

서 사용된 부정사 ἄρχειν은 17절의 ὥστε에 걸려 있다. 별은 낮과 밤을 다스리지는 않는다. 16절 마지막에 ‘별들을’이 있는데, 별들과 두 큰 발광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두 큰 발광체는 낮과 밤을 다스리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별의 기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따라서 αὐτούς는 ‘두 큰 발광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7절. 두셨다: 동사 τίθημι가 별들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⁴⁾ 하지만, 이 동사가 별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αὐτούς는 별들만을 가리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창세기 1:14-18은 “빛 창조 사역”을 다루고 있으며, 이 사역은 세 단계로 설명될 수 있다. 첫 단계는 14절에서 빛의 생성을 명령(γενηθήτωσαν)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16절에서 언급한 빛의 제작(εποίησεν)이다. 세 번째 단계는 17절의 빛의 설치(ἔθετο)이다. 결국, 동사 τίθημι는 “빛 창조 사역”의 세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τίθημι를 별의 기능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8절. 주관하게: 16절에서 보았듯이 동사 ἔστη를 칠십인경 번역자가 ἄρχω로 옮긴 반면, 아퀼라는 여기에서도 ἐξουσιάζω로 옮기고 있다. 16절의 해설을 참조하라.

18절. 사이를: 4절의 해설을 보라.

18절. (그리하셨다): 18절은 17절의 구문과 이어져 있으므로 정동사 역시 17절의 τίθημι (<την)가 전제되어 있다.

²⁰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은 기어 다니는 생물을 내리 또한 땅 위에서 하늘의 궁창을 따라 날아다니는 새들을 내리”⁺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²¹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와 종류대로 물이 번성케 했던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과 날개 달린 모든 새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²²그리고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많아져서 널리 퍼지라, 그리고 바닷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날짐승들은 땅 위에 널리 퍼질지라!”

²³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다섯째 날이었다.

[본문 및 번역에 대한 해설]

20절. 내라: 마소라 본문은 동일한 어근을 반복해서 וַיִּשְׂרֹץ וַיִּשְׂרֹץ의 쌍이 쓰인 데

24) M. Harl, *La Genèse*, 93.

비해, 칠십인경은 이를 반영치 않고 문맥을 따라 동사를 ἐξάγω로 옮기고 있다 (1:21, 8:17). 예상할 수 있듯이,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션은 일관되게 ἐρπετόν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동사인 ἐξέρπω를 채택하고 있다.

20절. 궁창을 따라: 마소라 본문의 קַיִעַ קָרַיִעַ קָרַיִעַ는 칠십인경에서 그 실질적 의미를 따라 전치사 κατά를 사용하여 κατά τὸ στερέωμα로 옮겨졌다.

20절. 날아다니는 새들을 내라: 마소라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개의 동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나는 קָרַיִעַ이고 다른 하나는 הָעוֹד이다. 이러한 3인칭 명령형은 칠십인경에서 이제까지 충실하게 반영되었으나, 20절의 두 번째 동사인 הָעוֹד는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분사 형태로 옮겨졌다. 이로 인해, 칠십인경은 마치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물”이 내는 것처럼 보인다.

20절.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칠십인경에만 등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에 대해서는 1:6, 8에서의 논의를 참조하라.

21절. 물고기: 창세기 번역자가 קָרַיִעַ를 κῆτος로 번역한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칠십인경에서 קָרַיִעַ는 대개 δράκων으로 번역이 되었다(참, 출 7:9, 10, 12; 신 32:33; 욥 7:12; 시 74(73):13; 91(90):13; 148:7; 사 27:1; 겔 29:3; 32:2).

21절. 좋았다: 창세기 1:8, 10, 12, 18에서는 כָּיִט를 καλόν으로 번역하였다. כָּיִט를 복수 καλά로 바꾼 점은 앞 구절들과 구별된다. 뒤따르는 25, 31절에서도 כָּיִט를 복수 καλά로 번역한다.

22절. 복주시며: 위버스는 다수 사본의 증거에 근거하여 본문을 εὐλόγησεν으로 편집하였다. 아오리스트 접두 모음이 생략된 이 형태는 코이네 그리스어에서는 흔히 있는 현상이다. 이에 비해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비롯한 몇몇 사본들은 좀더 오래된 형태로서 아오리스트 접두 모음과 더불어 장음화된 ἠυλόγησεν을 쓰고 있다. 랄프스는 이 증거들에 따라 본문을 편집하였다. 고전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은 이 형태와 코이네 그리스어 형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오래된 번역인지 판단하기란 어렵다. 필자의 견해로는 고전그리스어의 형태는 주후 2세기 이후 아티공의 언어를 선호하던 이들의 경향성이 남은 수정이 아닐까 한다.²⁵⁾

22절. (너희들은) 많아져서 널리 퍼지라: 히브리어의 동사 קָרַיִעַ와 קָרַיִעַ는 그 의미가 “번식하여 수가 많아지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칠십인경의 번역에서는 어원적으로 결실을 맺는 모습과 연관되는 “파라”를 “수가 많아짐”을 뜻하는 그리스어 동사 αὐξάνομαι로 옮겼으며, “많아짐, 커짐, 강성해짐”을 뜻하는 קָרַיִעַ를 “널리 퍼짐, 편만해짐”을 뜻하는 πληθύνομαι로 옮겼다. 두 히브리어 동사에 대한

25) 이에 관해서, H. St. J. Thackeray,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16, 4를 참조해 보라.

이러한 번역은 창세기 번역자의 번역 어법이라 할 수 있으며(참조, 창 1:28; 8:17; 9:1, 7; 17:20; 35:11; 47:27), 예레미야서의 칠십인경 번역에서도 두 번(3:16; 23:3) 등장하는데 이는 창세기의 번역어법과 어떤 전승적인 연관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22절. 바닷물: 그리스어의 표현을 직역하면 “바다에서 물을 가득 채우라”이다. 그러나 우리말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합성어 “바닷물”로 옮긴다.

22절. 널리 퍼질지라: 괴팅엔 비평본의 편집자인 위버스는 다수 소문자 사본들(그의 분류에 따르면 f t y z 그룹에 속하는 사본들)이 마소라의 본문과 일치하게 3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옮긴 데 근거하여 본문을 πληθυνέσθω로 편집하였다. 위버스에게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위의 소문자 사본 그룹들이 바티칸 사본(B)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서였을 것이다.²⁶⁾ 창세기의 대부분에서 바티칸 사본이 소실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공이 가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리스어에서 중성 복수의 주어가 단수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다는 점은 위버스의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이에 비해, 랄프스는 알렉산드리아 사본(A)을 비롯한 다수의 사본이 마소라 본문과는 달리 3인칭 복수 명령형을 쓰고 있는 데 근거하여 πληθυνέσθωσαν으로 편집을 하였다. 하지만 추측컨대 3인칭 복수형은 후대 필사자(오리겐 또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따르던 전통)의 수정으로 보인다. 이 낱말에 대한 랄프스의 본문 비평적인 판단은 그가 1935년에 완성한 괴팅엔 칠십인경 소비평본 이전에 1926년에 출간한 그의 창세기 비평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⁷⁾

²⁴⁾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은 종류대로 생명체를 내되, 네 발 가진 동물들과 기는 것들과 땅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²⁵⁾그리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가축들을, 그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

[본문 및 번역에 대한 해설]

24절. 종류대로: “종류대로”에 해당하는 לְמִינֵהוּ אוּ לְמִינֵיהּ, לְמִינֵיהּ에 붙여진 소유격 단수 어미들은 칠십인경 창세기에서 반영되지 않는다(1:12, 21, 24; 6:20; 7:14). 21절에서 복수형 어미가 붙은 לְמִינֵהוּ는 κατά γένος αὐτῶν으로 제대로 반영되었고, 25절의 לְמִינֵיהּ는 복수형 어미로 옮겨졌다(6:20에서도). 단수형 어미들

26) 참조, LXX-Gö, *Genesis*, 56-59.

27) LXX-Ra, 50.

은 대부분의 사본들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관되며, 복수형 어미가 붙은 אִמֵּיךָ은 이 어미를 반영하는 사본들과 반영치 않는 사본들로 나뉜다. 동물들을 열거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경우, 이러한 어미를 반드시 반영하여 번역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세기와는 대조적이다(예: 레 11:15, 16, 22; 신 14:13, 14, 18).

24절. 동물들: 칠십인경 전체에서 חַיָּוָה의 일반적인 대응어는 κτήνος이다. 24절을 대체로 되풀이하고 있는 25절에서도 사용되었고, 땅위의 여러 생명체들을 열거하는 다른 본문들에서도(가령, 창 8:20; 9:10)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볼 때, 24절에서 쓰인 τετράπους는 독특하다. 24절에서 보다 광의적으로 ‘네 발 짐승’으로 소개되고, 25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가축’으로 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4절. 기는 것들과 땅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καὶ ἕρπετά에서부터 κατὰ γένος까지의 본문은 다양한 종류의 사본들이 존재한다. 25절에서 이 부분이 좀 더 확장된 형태로 등장하고 이에 따라 25절과 24절의 동일한 내용을 가리키는 구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에서 이러한 다양한 이형들이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5절. 그들의: 대체로 칠십인경은 마소라 본문과 비슷하다.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면, 세 번 등장하는 피조물의 “종류대로”와 관련하여 히브리어는 단수 소유 접미사가 있는 반면, 칠십인경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소유접미사가 없고 세 번째에만 복수 소유접미사가 있다.

25절. 마소라 본문은 생물, 짐승, 파충류가 모두 단수인 반면, 이에 대응하는 칠십인경의 단어들은 모두 복수이다.

²⁶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상에 따라, 또⁺ 닳은 꼴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다스릴지라, 또한 가축들과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위에서 기어 다니는 곤충들을 (그리할지라!)”

²⁷그리고 하나님은 (*) 사람을 만드셨다. 그분(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사람)를 만드셨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 그들을 만드셨다.

²⁸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 “(너희들은) 많아져서 널리 퍼지라, 그리고 땅을 가득 채우며, 그것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과 +모든 짐승들과 땅의 모든 것들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들을 다스리라!”

²⁹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땅 위에 있는 씨를 맺는 씨앗 가진 모든 식물과 그 안에 씨를 맺는 모든 나무의 열

매를 주었다.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양식이 될 것이다.

³⁰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 또 하늘의 모든 새들에게, 또 각각 그 안에 생명의 영을 *지니고 있어*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에게는 (내가) 역시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겠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³¹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그러자 그것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여섯째 날이었다.

[본문 및 번역에 대한 해설]

26절. 우리 자신의: 히브리어에서는 소유대명사 어미가 두 번 쓰이고 있다. 반면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매우 다양한 이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 대격 소유대명사인 ἡμετέραν이 많은 필사본 내지 교부 인용에서 καθ' ὁμοίωσιν 다음에 쓰였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어 표현의 자연스러움을 위한 수정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아퀼라, 심마쿠스, 테오도션, 그리고 이차번역본들(Aeth Arab Bo)은 모두 히브리어 본문처럼 두 번을 소유격 인칭대명사 ἡμῶν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아마도 원-칠십인경 번역은 마소라 본문과는 달리 소유대명사가 한 번만 등장하는 본문을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26절. 형상에 따라: (1) 마소라 본문에서 쓰인 전치사는 도구격으로 쓰인 ׀이다. 이 전치사는 칠십인경에서 대개 전치사 ἐν으로 옮겨진다. 이것은 아퀼라의 번역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아퀼라는 마소라 본문의 전통과 그에 대한 일대일 대응 번역의 원칙에 따라 ἐν εἰκόνι ἡμῶν으로 옮긴다. 이 번역은 테오도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이에 비해 심마쿠스는 이 부분에서 ὡς를 선택하였는데, 심마쿠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치사를 칠십인경처럼 κατά로 구분한 것을 보면 심마쿠스 역시 이 부분의 전치사로 ׀와 구분되는 ׀를 염두에 둔 듯하다. 결국 칠십인경의 번역은 자음혼동으로 인한 이형으로 볼 수 있다. (2) 히브리어 ׀׀׀은 그 어원적인 뜻이 “조각상”이다. 한편 그리스어 εἰκῶν은 “어떤 대상과 동일한/유사한 그림”을 뜻한다. 이 번역이 히브리어 “첼렘”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상과 유사한 상(像)”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26절. 또 닭은 꼴로: 칠십인경은 여기에서 마소라 본문에는 없지만 사마리아 오경에서 볼 수 있는 접속사를 넣어 번역하고 있다. 아퀼라의 대본 역시 칠십인경과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심마쿠스는 마소라 본문처럼 접속사 없이 옮긴다. 테오도션은 이 부분에서 ὡς ἐν ὁμοίωσει로 옮기는데, 이는 히브리어 본문의 차이가 아니라 테오도션의 본문 이해에서 기인한 듯하다.

26절. 다스릴지라: Jussive 형태의 히브리어 동사 ׀׀׀׀׀가 칠십인경에서는 3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이런 형태가 우리말의 일상문법에서

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고어투의 문체이지만 3인칭 명령형의 형태를 살리기 위해, “-지라” 어미로 옮긴다. 또한 우리말 번역에서 동사의 위치 역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서의 위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첫 두 목적어들과만 직접 연결하고 문장 끝에서 “그리할지라”로 대신하였다.

26절. 땅의 모든 것들과: 몇몇 칠십인경 필사본들은 이 표현 앞에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και τῶν θηρίων을 첨가하고 있다. 이는 시리아어역(하이요트; ܚܝܘܬܐ hywt?)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히브리어 대본이 달랐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26절. 기어 다니는 곤충들을: 히브리어에서는 단수로 표현된 וְכָל־הַחַיָּוִיִּם가 그 의미에 근거해서 칠십인경에서는 복수로 옮겨졌다.

27절.(*): 칠십인경은 히브리 본문에 있는 ‘그의 형상에 따라’(בְּצַלְמוֹ)에 대한 대응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아퀼라와 테오도션 및 일부 소문자 사본들은 “엔 에 이꼬니 아우뚜”를 첨가한다). 이에 대해 첫째로, 칠십인경 본문이 원문에 가까우며 히브리 본문이 27상반절을 대칭 구조로 만들기 위해 후대에 בְּצַלְמוֹ를 첨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로 번역자가 מַצְלָם이 이중으로 반복되는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 מַצְלָם만 번역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Lust, Rösel) 일대일 번역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창세기 번역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²⁸⁾

27절. 형상: 창세기에서 5회 나타나는 מַצְלָם은 5:3을 제외하고(‘아담의 형상’)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אֱלֹהִים מַצְלָם(1:27; 9:6), צַלְמוֹ(1:27), צַלְמֵנוּ(1:26)가 쓰인다. 번역자는 바로 앞 절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과 본 절에 나타나는 ‘그의 형상’이 일으키는 충돌을 해결하지 못해 곧바로 다시 한 번 사용된 מַצְלָם만 선택적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28절. 말씀하시기를 (*): 마소라 본문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וַיֹּאמֶר לָהֶם אֱלֹהִים)”로 되어 있는 반면, 칠십인경의 번역으로부터 재구성할 수 있는 히브리어 본문은 וַיֹּאמֶר이다. 마소라 본문의 전통은 헉사플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퀼라, 테오도션 - και εἶπεν αὐτοῖς ὁ θεός; 심마쿠스 - εἶπεν δὲ αὐτοῖς ὁ θεός. 이에 근거하여 칠십인경 번역이 본문에 대한 직역이 아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8절.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들: 마소라 본문은 여기에서 וְכָל־הַחַיָּוִיִּם הַחֹפְרִים로 되어 있는 반면, 칠십인경 번역은 이와는 다소 다르게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28) R. S. Hendel, *The Text of Genesis 1-11. Textual Studies and Critical Edi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30 참조.

들”로 옮긴다. 이 번역은 “וּבְכֹל-הָרִמָּשׁ הָרִמָּשׁ”를 그 대본으로 전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26절에 맞춘 번역자의 임의수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헤사플라의 자료들은 마소라 본문과 동일한 히브리어 대본을 그대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였다: 아퀼라 - καὶ ἐν παντὶ ζῶω τῷ κινουμένῳ; 심마쿠스 - καὶ τὰ ζῶα τὰ ἔρποντα; 테오도션 - καὶ ἐν παντὶ ζῶω τῷ ἔρποντι.

28절. 물고기들… 곤충들을: (1) 히브리어의 단수 명사들을 칠십인경 번역에서 의미에 맞게 모두 복수로 옮겼다. (2) 전치사와 함께 쓰인 히브리어 표현 כּוּמְרָה가 칠십인경 번역에서는 ἄρχω τινος로 옮겨졌다. 헤사플라의 자료들을 보면, 히브리어의 표현이 서로 다른 번역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번역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아퀼라 - καὶ ἐπικρατεῖτε ἐν ἰχθύι …; 심마쿠스 - καὶ χειροῦσθε τοὺς ἰχθύας; 테오도션 - καὶ παιδεύετε ἐν τοῖς ἰχθύοι.

28절. 모든 짐승들과 땅의 모든 것과: 칠십인경은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구절을 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26절의 표현과 맞추려는 번역자의 의도로 보아야 한다. 헤사플라의 자료들은 마소라 본문처럼 이 부분 없이 번역하였다.

29절. 씨앗: σπόριμον의 등장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아퀼라와 테오도션에서는 נַעַץ의 대응어에 해당하는 “sp_”와 관련된 단어가 2개 있다. 이것으로 보아서 σπόριμον은 칠십인경 번역자가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30절. 지니고 있어: 칠십인경의 동사 ἔχω의 대응어가 마소라 본문에는 없다. 하지만, 이는 칠십인경 번역자가 더 나은 그리스어의 표현을 위해 임의로 삽입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30절.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에게는: (1) 마소라 본문이 분사만을 써서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 비해, 칠십인경의 번역은 26절과 28절의 번역과 통일되게 번역한다. 하지만, 헤사플라의 자료들은 마소라 본문과 동일한 본문전통을 고수하려 했던 28절과는 달리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아퀼라, 심마쿠스 - 아퀼라: τῷ. παντὶ κινουμένῳ; 테오도션 - παντὶ ἐρπετῷ ἔρποντι. (2) 랄프스는 분사 “헤르뽀띠” 앞에 여격 정관사 τῷ를 넣어서 본문을 편집하였다. 이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위버스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정관사 자체가 선행하는 명사 ἐρπετῷ 마지막 두 자음이 중복오사(dittography)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빼고 본문을 편집하였다. 위버스의 주장은 테오도션의 본문이나 다른 중세 소문자 사본들에 의해 지지된다. 바티칸 사본의 창세기 첫부분 원본이 소실된 상태에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앞선 본문증거이기는 하나, 비교적 후대인 5세기의 사본일 뿐만 아니라 헤사플라 등의 본문전승에 의해 혼합이 된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특징 자체를 고려할 때, 비록 중세 필사본의 지지만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관사를 빼 위버

스의 판단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0절. 역사: 이 부분에서도 위버스는 랄프스의 본문 편집에 반대하였다. 랄프스는 그리스어 사본들에는 있지만, 마소라 본문에서 대응어를 찾을 수 없는 *καί*를 빼고 본문을 편집하였다. 사실 이 “까이”를 접속사로만 여긴다면 본문의 해석은 매우 어려워진다. 하지만, “까이”가 부사적으로 쓰였다고 이해한다면, 그리스어 번역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모든 칠십인경 필사본들이 “까이”를 지니고 있다면, 위버스의 판단대로 이것이 이른바 “원-칠십인경”이라고 판단함직하다.

31절. 그러자: 칠십인경 번역자는 히브리 본문을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되는 *קִּי*가 본 구절에서처럼 *καὶ ἰδου*로 가장 흔하게 옮겨지지만(창 15:12), *καὶ ἦν*(창 6:12, 본 구절에 대한 심마쿠스역), *καὶ εἶχεν*(창 8:11), *καὶ ἔξει*(창 18:10) 등 다른 여러 방식으로 도 번역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1절. 매우: 본 구절에서 아퀼라와 심마쿠스는 칠십인경의 *λίαν*을 *σφόδρα*로 대체하는데, 칠십인경 창세기 7:18 등에서 32회 사용된 *σφόδρα*는 본 구절과 4:5에만 사용되는 *λίαν*보다 일반적인 용어이다. 아퀼라는 4:5에서도 *קִּי*를 *σφόδρα*로 옮기고 있다.

2.2. 창세기 2장

¹이제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만물이 완성되었다.

²그리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그분이 하시던 그분의 일들을 마치셨다. 그리고 그분은 일곱째 날에 그분이 하셨던 모든 그분의 일로부터 쉬셨다.

³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 하나님이 짓기 시작하셨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다.

[본문 및 번역에 대한 해설]

1절. 하늘: 아퀼라와 심마쿠스는 “하늘”을 복수형으로 옮기고 있다. 1장에서 칠십인경 사본들과 아퀼라, 심마쿠스 등 모든 역본들이 일관되게 “하늘”을 2:1에서처럼 단수형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아퀼라 등의 복수 번역은 특이하다.

1절. 만물: *קִּי*는 이 구절에서 독특하게도 *κόσμος*로 옮겨졌다. 이러한 식의 번역은 신명기(4:19; 17:3)와 이사야(24:21; 40:26, 참고 13:1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칠십인경에서 *κόσμος*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장식품(ornament; adornment)’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는데, 본문에서의 용법 역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베풀어 두신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קִּי*를 “별

(ἄστρον)”로 옮기는 번역도 여기에 일맥상통한다(사 34: 4). אָרְבַּע가 대체로 “군대”와 연관되어 번역되는 것이 칠십인경에서 일반적임을 생각하면(δύναμις: 창 21:22; 출 6:26; 민 1:26; 삼하 6:18; στρατία: 신 20:9; 삼하 3:23; 8:16 등), 이번 구절에서와 같은 번역은 상당히 독특하다.

2절. 여섯째 날: 마소라 본문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사마리아오경, 시리아역, 고대 라틴어역은 칠십인경처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마쳤다. 할(Harl)은 와우접두형(לַיְמֵי)을 과거완료로 번역하면 칠십인경과 마소라 본문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제안한다.²⁹⁾ 즉, “일곱째 날에 이미 일을 마치고(לַיְמֵי: 과거완료) 쉬었다(שָׁבַתָּ: 단순과거)”는 식으로 번역자가 이해하여서, 번역자가 이미 일을 마친 날을 여섯째 날로 번역하였을 것이라는 게 할(Harl)의 의도로 보인다. 만약, “마치다”를 과거완료로 이해했다면 “쉬다”도 과거완료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두 동사는 모두 연속하는 이야기 선상에 놓여 있고 동일한 동사 형태(와우 접두형)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완료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관계 대명사에서 사용된 카탈(κατα)이다.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쉬었다는 것보다 여섯째 날에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휴식을 취했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있기에, 칠십인경 번역자가 일곱째 날을 여섯째 날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3절. 시작하셨던: 이 구절과 관련하여 마소라 본문 3절은 의도적으로 짜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3절의 구조는 먼저 2절과 ab//a'b'의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³⁰⁾ 부정사구(οὐκ ἔτι)가 덧붙여진³¹⁾ 3절은 창조행위의 두 동사를 모두 씬으로써 창조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최종 편집자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³²⁾ 칠십인경의 번역에 쓰인 중간태 동사 ἄρχομαι는 히브리어 동사 אָרַב의 대응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번역은 마소라의 전통과는 또 다른 대본을 전제하고 있거나, 번역자의 의역일 것이다. 먼저, 마소라와 다른 전통의 본문은 쉽사리 재구성할 수 없다. 굳이 마소라 본문과 비슷한 동사를 찾는다면, 아람어 אָרַב의 파엘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참조, 라 5:2 = 2에스드라 5:2),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 위버스는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칠십인경 번역자가 첫 창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인클루시오(inclusio)로써 이 동사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본다.³³⁾

29) M. Harl, *La Genèse*, 98-99.

30) K. Westermann, *Genesis 1-3*, BK I 1,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⁴), 232.

31) 참조, GKC § 114 o.

32) K. Westermann, *Genesis 1-3*, 111.

33) 참조, J. W. Wevers, *Notes on the Greek Text of Genesis*, 21.

	MT	LXX
1: 1	כראשית	ἐν ἀρχῇ
2: 3	כרא	ἤρξατο

그러나 두 의견 모두 절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명확한 것은 자주 쓰이지 않는 히브리어의 구문이 칠십인경 번역 대본의 필사자 또는 칠십인경 번역자로 하여금 본문으로부터의 일탈을 이끌어냈으리라는 점이다.

3. 나가는 말: 앞으로의 과제 및 문제점들

본 글은 칠십인경의 한글 번역과 번역에 대한 주석을 주 내용으로 한다. 번역은 우리말 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원문의 단어와 형식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말 번역에 대한 관주는 칠십인경과 한글 번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관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첫째는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경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였다. 이것은 마소라 본문에는 있지만 칠십인경에는 없는 것과 칠십인경에는 있지만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것 등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칠십인경 원문 자체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말 번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칠십인경과 일반 그리스어와도 비교하여서 칠십인경의 특징을 드러내도록 했다. 셋째는 우리말 번역 자체에 대한 고민을 관주에 반영하였다.

교착어(膠着語 agglutinative language; 또는 첨가어 affixing language)인 우리말과 굴절어(屈折語 inflectional language)인 그리스어가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이기에 원문의 생생한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번역을 하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노력이 한국에서의 칠십인경 연구에 자극과 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점에서 번역과 더불어 관주 작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본다. 관주는 번역과 관련하여 번역자의 번역에 대한 질문이며 문제 제기이기에 이러한 관주들은 앞으로 칠십인경의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들은 차후 칠십인경 연구를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은 한국에서 칠십인경 연구를 위한 도전과 발판을 마련하리라 본다.

칠십인경은 마소라 본문의 본문비평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본 중 하나이기에 칠십인경 한글 번역은 한국 신학계에 본문비평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

는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칠십인경은 동일한 언어로 기록된 신약의 첫줄과 같기에 칠십인경 연구는 신약의 언어와 신약의 구약 인용구절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부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구약 성서(칠십인경)를 연구하는 것은 교부학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칠십인경 번역과 연구는 한국 신학의 총체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칠십인경 번역 사업과 더불어 필요한 일은 “칠십인경 그리스어-우리말 사전” 편찬 역시 시급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 편찬 작업이 번역 작업에 우선해야 한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은 번역자가 두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점검하고 정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전이다.

우리 신학계에서 칠십인경 연구와 관련하여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나왔다. 칠십인경 창세기의 우리말 번역³⁴⁾과 외국서적을 편역한 칠십인경 문법책³⁵⁾이 그것이다. 비록 많은 한계점들이 눈에 띈지만, 가뭄에 비가 내린 격으로 정말 값진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아직 칠십인경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번역 시안 형식으로 준비된 본 글은 칠십인경의 우리말 번역 작업은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 의식이 반영된 글이다. 이 글은 하나의 제안으로서 앞으로 칠십인경 번역에 대한 발전된 논의와 좋은 칠십인경 우리말 번역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한 부분이기에, 격려가 필요하며 발전적 비판에도 열려 있다.

<주요어>(Keywords)

칠십인경, 한글 번역, 창세기, 헬레니즘 유대주의, 본문비평.

Septuagint, Korean Translation, Genesis, Hellenism Judaism, Textual Criticism.

34) 정태현/강선남 역주, 『칠십인역 창세기』(왜관: 분도출판사, 2006).

35) 강선남 편역, 『칠십인역 그리스어 문법』(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06). 이 책은 편역자가 머리말에서 밝히듯, 테커레이(*Grammar of Septuagint Greek*, 1905)와 코니 베어-조지 스톡(*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1909)의 문법책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편역자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리한 내용으로 보아서 1부 어형변화는 테커레이에 의존하였고 2부 구문론은 코니 베어-조지 스톡의 문법책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법책으로서 통일성에 있어서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참고문헌>(References)

- 강선남 편역, 『칠십인역 그리스어 문법』, 의정부: 한남성서연구소, 2006.
- 김정훈, “성서학 서평-칠십인역 창세기. 정태현, 강선남 역주, 왜관, 2006”, 『성서마당』 신창간 7호 (2006), 87-95.
- 정태현, 강선남 역주, 『칠십인역 창세기』, 왜관: 분도출판사, 2006.
- Alexandre, M., *Le Commencement du Livre Genèse I-V, Christianisme Antique 3*, Paris: Beauchesne, 1988.
- Bailly, A., *Dictionnaire Grec-Français*, Paris: Hachette, 1894, 1963².
- Blass, F., Debrunner, A., and Rehkopf, F., *Grammatik des NT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1¹⁸.
- Brenton, L. C. L., *The Septuagint Version of the Old Testament, According to the Vatican Text,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the Principal Various Readings of the Alexandrine Copy, and A Table of Comparative Chronology*. 2. London: Samuel Bagster and Sons Ltd., 1844.
- Brooke, A. E. and McLean, N.,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 Uncial Manuscripts; with a Critical Apparatus Containing the Variants of the Chief Ancient Authorities for the Text of the Septuagint. Volume I. The Octateuch. Part I. Gene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7. (=B-M).
- Brown, W. P., *Structure, Role, and Ideology in the Hebrew and Greek Texts of Genesis 1:1-2:3*, SBLDS 132, Atlanta: Scholars Press, 1993.
- Conybeare, F. C. and Stock, G., *A Grammar of Septuagint Greek*,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0.
- Elliger, K. and Rudolph, W.,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7.
- Fernández Marcos, N. and Busto Saiz, J. R.,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II, 1-2 Reyes; III, 1-2 Crónicas*, TECC 50, 53, 60, Madrid: CSIC, 1989, 1992, 1996.
- Fernández Marcos, N., “Reaction to the Panel on Modern Translations”, Bernard A. Taylor, ed., *X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Oslo, 1998*, SCS 51, Atlanta: Scholars Press, 2001, 233-240.
- Field, F., *Origenis Hexaplorum Quae Supersunt; Sive Veterum Interpretum Graecorum in Totum Vetus Testamentum Fragmenta*, 1, Oxford: 1867;

- reprinted Hildesheim: Georg Olms Verlag, 1964.
- Fraenkel, D.,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Bd. I,1 Die Überlieferung bis zum VIII. Jahrhundert. Septuaginta Vetus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Supplementum*,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2004.
- Gesenius, W. (rev. Kautzsch, E.), *Hebräische Grammatik*, Hildesheim; Zürich; New York: Georg Olms Verlag, 1995²⁸, Cowley, E. A., trans.,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1910² (=GKC).
- Hanhart, R. and Wevers, J. W., *Das Göttinger Setpuaginta-Unternehmen. Festschrift für Joseph Ziegler zum 75. Geburtstag*,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1977.
- Harl, M., Dorival, G., and Munnich, O., *La Bible Grecque des Septante. Du Judaïsme Hellénistique au Christianisme Ancien*, Paris: Cerf, 1988.
- Harl, M., *La Genèse, La Bible d'Alexandrie I*, Paris: Cerf, 1986.
- Hatch, E. and Redpath, H. A., eds.,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8²; org., Clarendon Press 1897 (=HR).
- Hendel, R. S., *The Text of Genesis 1-11. Textual Studies and Critical Editio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Jellicoe, S., *The Septuagint and Modern Study*, Oxford: Clarendon, 1968.
- Joosten J., et Le Moigne Ph. édés., *L'Apport de la Septante aux Études sur l'Antiquité: Actes du Colloque de Strasbourg 8-9 Novembre 2002*, Lectio Divina, Paris: Cerf, 2005.
- Joosten, J. "The Ingredients of New Testament Greek", *Analecta Bruxellensia* 10 (2005), 56-69.
- Joosten, J., "Le Milieu Producteur du Pentateuque Grec", *Revue des Études Juives* 165 (2006), 349-361.
- Karrer, M. and Kraus, W., eds., *Septuaginta Deutsch. Bd. 1: Das Griechische Alte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Bd. 2: Erläuterungen zum Griechischen Alten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근간.
- Koehler, L. and Baumgartner,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2*, Leiden; Boston: Brill, 2004.
- Kraus, W., "Contemporary Translations of the Septuagint: Problems and

- Perspectives”, W. Kraus u. a., eds., *Septuagint Research-Issues and Challenges in the Study of the Greek Jewish Scriptures*, SCS 53, Atlanta: Scholars Press, 2006, 63-83.
- Kraus, W., “Hebräische Wahrheit und Griechische Übersetzung - Überlegungen zum Übersetzungsprojekt Septuaginta-deutsch (LXX.D)”, *ThLZ* 129 (2004) 9, 989-1007.
- Kreuzer, S., “A German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BIOSCS* 34 (2001), 40-45, 김정훈 역, “칠십인경 독일어 번역 프로젝트”, 『성서마당』 59 (2003), 18-22.
- Kreuzer, S., “Entstehung und Publikation der Septuagint am Horizont Frühptolemäischer Bildungs- und Kulturpolitik”, Kreuzer, S. and Lesch, J., eds., *Im Brennpunkt: Die Septuaginta. Studien zur Entstehung und Bedeutung der Griechischen Bibel*, Bd. 2., BWANT 161 (Stuttgart: Kohlhammer, 2004), 61-75.
- Liddell, H. G. and Scott, G. (revised by H.S. Jones),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843; 1996⁹ (=LSJ).
- Muraoka, T., *Hebrew-Aramaic Index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8.
- Pape, W., *Griechisch-Deutsches Handwörterbuch*, Bd. 2. Graz: Akademie Druck- u. Verlagsanstalt, 1954³ (=Pape).
- Pietersma, A., “A New Paradigm for Addressing Old Questions: The Relevance of the Interlinear Model for the Study of the Septuagint”, J., Cook, ed., *Bible and Computer. The Stellenbosch AIBI-6 Conference* (Leyde, 2002), 337-364.
- Pietersma, A., *The Psalms: A New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Old Greek Translations Traditionally Included under That Titl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Rahlfs, A., (rev. R. Hanhart),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Editio Alter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Rahlfs, A., *Septuaginta, I Geneses*,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26.
- Rahlfs, A., *Septuaginta. Id est Vetus Testamentum Graece iuxta LXX Interpretes*, Stuttgar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1935;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LXX-Ra).

- Rahlfs, A.,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MSU II, Weidmannsche Buchhandlung, 1914.
- Reider, J., *An Index to Aquila*, SVT XII, Leiden: Brill, 1966.
- Thackeray, H. St. J., *A Grammar of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9.
- Thompson, C.,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the New Covenant, Commonly Called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 4 vols. Philadelphia, 1808.
- Tov, E.,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Jerusalem: Simor, 1997².
- van der Kooij, A., “The Origin and Purpose of Bible Translations in Ancient Judaism: Some Comments”, *Archif für Religionsgeschichte* 1 (1999), 204-214.
- Vincent, J. M., “« Tu aimeras ton prochain comme toi-même » ? LV 19,18b dans son contexte”, *ETR* 81 (2006), 95-113.
- Westermann, K., *Genesis 1-3*. BK I 1,1. Neukirchen-Vluyn, 1994.
- Wevers, J. W., eds.,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I.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4 (=LXX-Gö).
- Wevers, J. W., *Notes on the Greek Text of Genesis*, Atlanta: Scholars Press, 1993.
- Wevers, J. W., *The History of the Greek Genesis*. MSU XI, Göttingen: Vandenhoeck and Ruprecht, 1974.

<Abstract>

Study for Korean Translation of the Septuagint: Genesis 1:1-2:3

Prof. Keun-Joo Kim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r. Sun-Jong Kim (Marc Bloch University in Strasbourg)

Dr. Jong-Hoon Kim (Hannim Biblical Institute)

Dr. Sang-Hyuk Woo (Marc Bloch University in Strasbourg)

The Septuagint (LXX) has been so far regarded only as an ancient, although most important, witness for clarifying the Masoretic Text (MT) so it tends not to attract public attention which it deserves. As a matter of fact, the study of LXX has been limited to specialized scholars. But closer consideration on the Old Greek translation shows us that it occupies a very significant position at least in two aspects: LXX reflects a pre-Masoretic ancient Hebrew text, and LXX was read as “the” Old Testament for the first Christian church for centuries. Based upon the above significance, LXX should be circulated and meditated not only in the sphere of specialized students, but also among ordinary Christians, especially among those who seem to consider the *Korean Revised Version* (KRV) as a kind of “the inspired version of the Bible”. This article is the first step to introduce LXX under this background, and translates Gen 1:1-2:3 of LXX, keeping as many words in *KRV* as possible to let the readers find how it differs from *KRV*. The translation consists of two sections: translation proper, and its critical apparatus to show the difference between MT and LXX, and to explain the variants among different versions.